

“5·18 님은 꿀” 광주시민사회, 미얀마 민주화연대 앞장선다

‘군부 권력 맞선 민주투쟁’ 동질감
 “진행 양상, 오월광주 연상케 해”
 “후원·관심 절실...국제사회 개입”

미얀마 군경이 군부 쿠데타에 반발하는 시민들을 연일 강경 진압하고 있는 가운데, 41년 전 5·18민주화운동 당시 국가 폭력의 아픔을 겪었던 광주 시민사회가 국제 민주주의 연대에 앞장서고 있다.

21일 5·18기념재단 등에 따르면, 광주 지역 100여 개 시민사회단체는 지난 11일 ‘미얀마 군부 쿠데타 반대와 민주화 지지 광주연대(미안마 광주연대)’를 결성했다.

“미얀마 광주연대”는 매주 일요일 광주종합버스터미널에서 미얀마 민주 항쟁에 대한 시민 홍보 활동도 펼쳐지고 있다. 항쟁 시민들에게 구호 물품을 전달하기 위한 후원금도 모금 중이다.

광주아시아여성네트워크 등도 민주항쟁의 성지인 5·18민주광장에서 3월 한 달 동안 매주 토요일 연대 집회를 열고 있다.

연대 집회에는 광주시민들과 미얀마 유학생이 함께 참여, 군부 쿠데타 직후 미얀마인들의 저항 행동을 상징하는 ‘판봉띠’를 재현하고 있다. ‘판봉띠’는 냄비 등을 두드리며 악기를 쫓는 미얀마의 풍습으로, ‘군부는 물러나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

광주 시민단체는 잇따라 연대 성명을 발표하며, 한 목소리로 미얀마의 민주주의·평화 회복을 염원하고 있다.

또 시민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국제사회의 적극 개입을 촉구했다.

장현권 광주기독교연합회 대표는 “1980년 광주 민주항쟁의 님은 점이 많다. 군부 쿠데타, 저항 시민, 시민을 상대로 한 진압 만행 등 진행 양상이 오월광주를 연상케 한다”며 “아픔을 간직한 광주가 미얀마와 연대해야 한다. 광주 시민들이 신군부에 저항했던 마음으로, 미얀마 군부를 향한 시민 불복종운동을 응원하고 지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를 비롯한 국제사회도 미얀마 군부가 압박을 느낄 수준의 강도 높은 경제 제재를 해야 한다”며 “민간인에 대한 학살 자행에 대해선 국제연합(UN)도 더는 방관하지 말아야 한다”고 역설했다.

황정아 광주아시아여성네트워크 대표는 “실질적인 도움이 절실하다. 코로나19 위기 속에서 두 달 가까이 정치적 혼란이 이어지고 있어 생계·의료 위기가 심각하다”며 “미얀마에 식품·의료품을 지원하기 위한 모금 활동에 참여해달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한 문제 의식 공유도 큰 힘이 될 것 같다”고 했다.

또 “우리 정부도 미얀마 민주화를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 미얀마인들은 군부에 맞선 ‘유사 정부’인 미얀마 연방의회 대표위원회(CRPH)를 외교적으로 인정해달라고 호소한다”고 전했다.

박재만 광주시민단체협의회 상임대표는 “군경의 강경 진압에 반발, 시민불복종 운동의 평화 기조가 무력 대응으로 바뀌는 모양새다. 내전으로까지 번질 경우 무고한 희생이 더욱 커



광주 시민사회단체가 20일 오후 광주 동구 5·18민주광장 앞에서 미얀마 군부 퇴진을 촉구하는 ‘판봉띠’ 퍼포먼스를 진행하고 있다.

질 것 같아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41년 전 광주시민들이 겪어야 했던 비극이 되풀이되고 있는데도 “국제정치에서 강대국간 이해관계 속에서 이렇다 할 해결 실마리를 찾지 못하는 것 같아 안타깝다”며 “시민사회도 범세계적인 연대를 통해 미얀마 민주화를 위한 구체적인 지원책을 찾아야 한다”

고 역설했다.

조진태 5·18기념재단 상임이사는 “민주화에 대한 의지와 열망, 민주적 정당성을 지키겠다는 점에서 미얀마가 곧 5·18항쟁이다”고 평가하며 “군부의 폭압적 통치 체제는 종말을 고해야 한다. 국제사회가 적극 개입해 군부의 학살 만행을 제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미얀마 군부는 지난달 1일 쿠데타를 단행, 이웅산 수지 국가고문 등 요인들을 대거 체포했다. 정치범지원협회(AAPP)는 군부의 발표 등으로 238명이 목숨을 잃었고 연행자는 2000명을 넘어섰다고 집계했다.

김민정기자

‘수천억 피해’ 광주 자동차산업 멈춰세운 노사분쟁 타결



민주노총에 가입한 광주지역 자동차 부품업체인 호원 근로자들이 사측이 노조활동을 탄압했다고 주장하며 광산구 하남산단에 소재한 공장 1개동을 점거한 채 농성을 하고 있다. (사진=민주노총 광주본부 제공)

기아 오토랜드 광주공장을 비롯해 250여 부품협력사의 생산라인을 5일째 멈춰 세운 ‘차체 프레임’ 1차 부품공급 협력사인 ㈜호원의 노사(분쟁) 갈등이 봉합됐다.

호원은 20일 오전 노사 협상을 통해 마련한 잠정합의안을 재적 조합원 109명 가운데 87명이 투표에 참여해 전원 찬성으로 가결시켰다고 밝혔다.

합의안 통과로 호원 노사는 조인식을 하고 오후부터 부품공장 가동을 정상화했다. 전국급속노동조합연맹 호원노동조합은 한

국노총 산하 1노조, 민주노총 산하 2노조 등 복수노조로 이뤄졌다.

노사는 합의안을 통해 노조원에 대한 모든 징계를 취소하고 내달 1일자로 원상회복, 지난 16일부터 하남산단 공장 점거 과정에서 발생한 피해 등에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기로 했다. 또 특별합의서를 통해 호원과 급속노조 호원지회는 각 2인이 참여하는 노동환경 개선위원회를 4월1일부터 주 1회 진행하기로 합의했다.

앞서 민주노총 호원지회는 지난해 1월부터 사측과 노조활동 문제로 갈등을 빚어오다 16일

기아차 1차 협력사 ㈜호원 합의안 타결
 민·형사 책임 묻지 않기로...공장 가동
 기아 광주공장 오늘부터 정상가동 예정

오전 6시부터 ‘노조활동 보장’, ‘해고 직원 복직’ 등을 요구하며 5일째 공장을 점거한 채 농성을 해 왔다.

이날 호원의 노사 갈등은 봉합됐지만 지역 총생산량의 30%를 차지하는 광주지역 자동차 산업 피해 여진은 이어지고 있다.

기아 광주공장은 1차 협력사인 호원이 공급해온 차체 프레임 재고 부족으로 20일 토요일 예정된 주말 특근을 취소함으로써 5일째 정상

가동을 못하게 됐다.

셀토스·쏘울·스포티지·봉고트럭을 하루 2000여대 생산하는 기아 광주 1·2·3공장 정상 가동은 오는 22일 월요일 주간 조부터 정상화될 전망이다.

이번 호원 사태로 가장 큰 피해를 본 기아 광주공장은 하루 생산 중단으로 입은 피해액만 약 700억원에 달해 총 피해규모는 3000억원을 웃돌 것으로 알려졌다.

원천인 기아 광주공장이 멈춰서면서 1·2·3차 부품공급 협력사 250여곳도 정상 조업에 차질을 빚으면서 수백억원대의 매출 감소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전해졌다.

기동재본부

#방콕탈출 #힐링타임
#안전한영화관람

함평 자동차극장

- GRAND OPEN -

1관 19:20~ 21:45~
2관 19:00~ 21:30~

**코로나19 걱정없이
매일저녁2회상영**

※ 매주 월요일 휴관

함평엑스포공원 황소주차장 내

함평군

예매 www.hpcc.co.kr

문의 061)320-2225